

## ‘경전선 현안’ 파란불에 요동치는 전남동부권 민심

경전선 우회 약속 정부 ‘긍정 검토’  
경전선 광양역 정차도 전향적 태도  
무소속 지지체장들, 정부·輿 공략  
천하람·조수진 두각... 총선 급부상

‘경전선 도심 우회·정차역’ 등 순천·광양의 숙원 현안이 정부와 여권의 전폭적인 밀어주기로 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남 동부권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순천·광양은 현직 단체장 모두 무소속인 데다 보수정당의 ‘국회 1호 진출’을 이룬 곳이다. 최근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정치인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총선을 앞둔 전남 동부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천과

광양의 경전선 현안에 대해 원활한 추진을 약속했다. 지난 16일 원 장관은 노선이 도심에 관통한다는 이유로 순천지역에서 반발과 논란을 낳고 있는 경전선 예정 부지를 찾아 “도심을 우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공약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자축하면서 “순천은 작년 민선 8기 시작 이후 용산·세종·전남도청 곳곳에 가서 경전선 문제를 항의하고 시민의 뜻을 전달했다”며 “오늘 그에 대한 정부의 답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

같은 날 원 장관은 정인화 광양시장도 만나 경전선과 관련된 광양시의 숙원 해결에도 의지를 보였다. 광양시는 순천과 부전(부산)을 연결하는 KTX-이음(준고속철도) 운행시, 광양역을 정차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에 원 장관이 전격적으로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면서 광양시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광양시는 올해 하반기에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이 결정되는데 그 전까지 광양역 정차 타당성 용역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전선과 관련된 순천·광양의 현안 해결이 정부의 추진 의지로 물꼬가 트였다. 양시 모두 무소속 단체장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달리 정치적 제약없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게 먹혀든 셈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해부터 도심 관통 경전선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건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 역시 지역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업 대신 정부와 여권을 공략했다.

오승용 김평정책리서치대표는 “민주당

텃밭이라는 특성상, 지금까지 지지단체장은 정치인적 성향이 더 강했다”며 “기존에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인 민주당과의 협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무소속 단체장들은 정부와 여권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등 관습을 탈피한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민의힘 내 서진 정책이 다소 힘을 잃은 상황에서 여권의 차기 인물들이 ‘호남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것도 지역 민심 변화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4인에 포함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천하람 후보로 순천의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천 후보는 대구 출신이지만 순천에서 활동하는 이색 이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조수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전남지역 무소속 시장·군수의 지역구를 돌며 현안을 챙기기도 했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로서 지지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 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순천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이정현 전 의원이 재선을 한 지역구로 최근 정부와 여권 인물들이 부각되고 있어 향후 총선 판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순천에 거주하는 배모(56)씨는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천하람 후보가 중앙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지역민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며 “순천의 민심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다. 순천의 미래를 생각하면 총선 때 실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 내일까지 조합장선거 후보등록 접수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광주 18곳·전남 182곳 선거  
시·군·구 선관위서 후보 접수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21~22일 관할 시·군·구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광주는 18개 조합(농·축협 16곳·수협 1곳·산림조합 1곳), 전남은 182개 조합(농협 142곳·수협 19곳·산림조합 21곳)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국 1344개 조합장 선출에 총 3475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합장선거 후보 대상은 해당 조합 조합원으로 조합법·해당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 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 선거권자는 22~25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루 앞둔 20일 광주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한다.

후보자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

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한다.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

(<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우리 고향 살리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

# 제1회 호남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

[전국 8도 고향사랑 페스티벌]

2023년 6월 30일(금) ~ 7월 2일(일) 수원컨벤션센터

주최 전남일보      주관 (주)한국전시산업원

내 고향 살리는 따뜻한 마음